

# 안녕한 사하

이제기 공작산 부시. 3호 - 2024

 [서] 부산소도리테리 하의호  
만양담



# 안녕한 사하

이야기공작소 부산  
3호 \_ 2024

총서, 단행본은 겹낫표(『』)로, 논문, 기사, 단편소설, 시, 영화 등 개별 문헌 및 작품은 홑낫표(「」)로,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은 겹화살괄호(《》)로 표기했음을 알려둔다.



##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부산교육역사관을 가다

부산교육역사관으로 가는 길은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과 자갈치역에서 마을버스(서구2, 서구2-2, 사하구1-1)로 환승해 ‘(구)감정초등학교·감천문화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금방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진작 이 경로를 택하는 편이 수월했겠지만, 등줄기에 흐르는 땀이 식을 새 없이 발길을 옮기고 또 옮기고만 있다. 감천동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천2동 태극도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훑으며 올랐기 때문.

목적지에 닿기 전, 아미성당에서 한숨 돌린다. 알려진 사실대로 감천동을 비롯해 아미동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에 의해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판자촌이었다.

아미성당



부산교육역사관

마리아수녀회 설립자인 슈워츠(A. Schwartz) 신부는 1967년, 빈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진료소를 개설한다. 이듬해 아미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교내에 교리실 두 칸을 성당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1969년 아미성당으로 인가가 난다. 가난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동네가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당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78년에는 아미고등공민학교가 폐교되고, 몇 해 뒤에는 구호 진료소가 사제관으로 개축된다. 2015년 축성한 천국카페, 천국도서관, 화장실은 지역민과 여행자의 눈길을 잡아끈다. 신자들만의 전유가 아니라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등, 아미성당은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국을 꿈꾸었던 건립 당시의 의의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땀을 식히기 위해 들른 카페와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인 도서관에서는 소박하고 따뜻한 달동네의 미학이 은은하게 전해져 온다. 그곳에서 조망하는 감천문화마을의 정경을 보고 있노라면 신의 넉넉한 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없이 머무르고만 싶은 마음을 재우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애초 나의 관심은 올해 3월, 개관 소식을 알려온 부산교육역사관에 있었기 때문.



학령인구의 감소로 속출하는 폐교 소식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어느 외딴 지방에 국한된 얘기 또한 아니다. 대부분의 폐교는 운동장을 포함해 넓은 부지 면적을 지닌 데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물론, 교육 지원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사례도 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중앙중학교는 ‘궁리마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부산과 학기술협회의회의 삼각 편대가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수학과 과학을 익힐 수 있도록 열린 창의체험관을 만든 것이다. 현재는 ‘놀이마루’로 이름을 바꾸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이곳에서 운영하는 감만창의문화촌 역시 폐교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고, 함께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일구어 가는 모습은 창의적 재개발의 전범이라 부를 만하다. 그러나 많은 폐교가 여전히 지역의 골칫거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내게 평소 지역 개발 문제에 대단한 관심이나 혜안을 가진 자냐 물으면 손사래를 칠 일이다. 다만,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을씨년스럽게 삭아가는 현실 자체가 작가적 문제의식의 한 귀퉁이를 긁어왔던 것뿐. 이러한 마당에 지난 3월 11일 개관한 ‘부산교육역사관’의 소식이 반갑고 또 호기심을 자극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2019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감정초등학교 터에 문을 열었다. 1980년 개교하여 4,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의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부산교육역사관을 훑아보면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이 먼저 눈에 들

어온다. ‘오싹오싹 과학실’, ‘감정문방구’, ‘청춘네컷 사진관’으로 꾸러진 1층은 지루하고 딱딱한 학습관의 이미지를 단박에 탈피한다. 2층과 3층에는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의 100년 이상 된 학교를 소개하는 기획전시실에도 좀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한층 더 올라가면 독도체험관이 관람객을 반긴다. 우리 땅 독도의 자연과 생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귀한 나들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내실 있는 전시·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년 동안 교육 유물과 사료를 수집해 왔다고 한다. 학교와 동창회, 교육 관계자, 부산 시민들의 기증을 통해 마련된 귀한 자료들이 단순 보존·연구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더욱 뜻깊게 활용되고 있었다. 문득,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떠오른다. 멀리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연속성에 근거할 때에만 허황되지 않을 수 있다. 감천동과 피란 수도 부산은 모두 한국전쟁으로 인해 굴절된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통과해 왔다.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세월 속에서 어제의 기억들은 무용하게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일까. 아니다. 오늘날 새로운 쓰임으로 다시 태어난 폐교처럼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새로운 자산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부산교육역사관의 역할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3,4 — 부산교육역사관 내부



# 안녕한 사하

몰운(沒雲)과 정운(鄭運)  
살아 움직이는 모래톱, 도요등과 백합등 이야기  
화준구미 별별 이야기

오래된 미래, 에덴공원  
하단항, 도심 속 작은 포구  
하굿둑 어도(魚道), 피시 로킹(fish locking) 이야기

하늘과 땅을 지키는 나무, 괴정 회화나무  
사라진 패총과 고분군  
사람도 넘고 뚝차도 넘던 대티고개

북극의 오로라 아래서 어묵탕을  
아미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소원을 빌다  
장림 김을 아시나요?

감천초등학교가 낳은 사람과 풍경들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부산교육역사관을 가다  
어떤 빛에 대한 소고(小考) 태극도마을의 골목들을 걷다

YK스틸 구평공장에 관한 구불구불한 추억  
현실적인 삶의 비현실적 풍경, 구평가구단지에서 가다  
명태의 여정 속, ‘구평동 감천항’과 ‘냉동창고’라는 조각들

모두를 위한 기원  
꽃바구니를 닮은 동네  
뚝 구덩이와 뚝 다리

본동, 새마을 그리고 새 신평  
임경업 장군과 신평  
배고개길과 독매 바위

미래로 노를 젓다  
사하: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공간으로  
사하구의 어제와 오늘

을숙도의 두식이  
바다를 잘 아세요?  
위안과 기적의 장소, 을숙도  
낮개 바닷가에서 누리는 일상 행복  
노을, 별을 품다  
나의 교장 선생님께

- 이 책은 부산시 후원으로 개최되는 제11회 부산스토리텔링축제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은 개인 필자 의견이며, (사)부산스토리텔링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 사진 등은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 이야기공작소 부산 3호 \_ 2024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발행인 진영부

발행처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국제문화센터 7층

051-505-2030

기획편집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집필진 김동명, 김민수, 김지현, 나여경, 박정도, 서현정, 손해담,  
신정민, 안병진, 임희숙, 정재운, 조갑란, 최원준 \*가나다순

사진 부산스토리

디자인·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자료제공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신문

ISSN 2951-2379



